

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보험업계 자금 35조원, 부동산시장 유입 전망

- 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보험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보험업계의 자산운용수익 향상 및 중국 부동산시장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음.
 - 이번에 개정된 보험법은 보험회사가 유가증권, 증권투자기금(펀드) 외에도 기존에는 금지했던 부동산까지 투자가 가능하도록 투자 영역을 확대함.
 -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는 상업용 부동산이 장기투자를 선호하는 보험회사들의 주요 투자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험업계의 투자영역 확대로 자산운용수익이 크게 개선되는 동시에 부동산시장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 - 국제부동산자문기구가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, 보험회사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면 보험회사는 국유기업과 함께 중국 부동산시장의 주요 투자기관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함.
 - 또한 중국 부동산시장에 투자한 외국인의 시장점유율은 작년에는 65%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,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올해 6월말 현재 약 30%대로 급감하는 등 보험회사 자금 유입으로 국내 기관투자자의 시장점유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.
- 최소 약 2천억 위안(약 35조원) 규모의 막대한 보험회사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, 부동산시장 과열화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음.
 -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, 작년 중국 보험업계의 운용자산은 2조 2,500억 위안으로 부동산 투자비율을 10%로 제한한 이번 개정 보험법을 적용할 경우 상하이시 최고급 오피스 빌딩 시장가치의 두 배에 해당하는 최소 2천억 위안 규모의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됨.
 - 그러나 업계 일부에서는 막대한 규모의 보험회사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될 경우, 토지 및 건물가격 상승을 불러 일으켜 오히려 투자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음.

(중국신문망, 9/23)